27일 용인 에버랜드스피드웨이에서 개막하는 2019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는 'MINI 챌린지 코리아(사진)'가 신규 레이스로 열린다. 작지만 파워풀한 MINI 특유의 움직임을 통해 모터스포츠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사진제공 |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MINI·레디컬카 레이스 신설…짜릿함 두 배!

총 5개 부문·8개 클래스 역대 최다
ASA6000 클래스 극강 속도감 자랑
독특한 디자인 레디컬카 이색 재미
27·28일 에버랜드스피드웨이 굉음

국내 최고의 모터스포츠 축제인 2019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개막전이 27, 28일 용인 에버랜드스피드웨이에서 열린다. 이번 시즌이 기대되는 이유는 다양한 신설 클래스를 포함해 역대 최다인 총 5개 부문 8개 클래스의 레이스가 펼쳐지기 때문이다.

최상위 클래스이자 스톡카 레이스인 'ASA6000 클래스'를 필두로 투어링카 레이스인 'GT 클래스', BMW M4 Coupe 차량만 참가하는 'BMW M클래스', 신설된 MINI만의 레이스인 'MINI 챌린지 코리아'와 미니 포뮬러카라 불리는 '레디컬카' 등 다양한 레이스가 열린다.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각 레이스의 특징을 살펴봤다.

●레이스 특성을 알면 재미가 두 배

CJ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최상위 클래스는 'ASA6000 클래스'다. 오로지 레이스만을 위해 특수제작한 스톡카(Stock Car)로 경기를 치른다. 자동차의 모든 편의장비를 제거하고 안전과 달리기만을 위해 설계되어 최고출력 436마력, 최고속도 300km/h에 이르는 퍼포먼스를 발휘해 관람객들은 가장 짜릿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서만 볼 수 있으며, 가장 빠르면서 컨트롤이 어려워 국내·외 최고 수준의 선수들만 참가한다. 지난 시즌에는 아트라스BX 레이싱팀의 김종겸 선수가 만 27년 1개월 20일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챔피언에 올랐다. 이번 시즌에는 서주원(제일제당 레이싱), 이정우(CJ로지스틱스 레이싱) 권재인(원레이싱) 등이 새롭게 'ASA6000 클래스' 챔피언에 도전한다.

올해 신설된 레디컬카 레이스

투어링카 레이스인 'GT 클래스'도 흥미롭다. 대회 규정에 맞게 개조한 양산차들이 참가하는 대회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차량으로 진행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고, 참가 욕구까지 자극하는 클래스다. 같은 차종이라도 어떻게 개조를 했느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 그만큼 변수도 많다. 올 시즌에는 엔진 출력에 따라 GT1과 GT2 클래스로 나누어 진행한다.

지난 시즌 신설된 'BMW M클래스'도 관람객들이 흥미롭게 지켜보는 레이스다. BMW의 M4 쿠페 차량만 참가하는 원메이크 레이스(단일차종 경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슈퍼레이스에서만 볼 수 있다. 최고출력 450마력, 제로백 4.1초의 고성능 차량이 보여주는 다이나믹한 레이스를 만끽할 수 있다.

올 시즌 신설된 'MINI 챌린지 코리아'는 MINI 쿠퍼 JCW, 쿠퍼 S, 쿠퍼 레이디 등 총 3개 클래스로 진행된다. 특히 레이디 클래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여성 드라이버 전용 레이스다. 개성으로 가득한 외관과 작지만 파워풀한 MINI 특유의 움직임을 통해 모터스포츠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미니 포뮬러카라 불리는 '레디컬카 레이스' 역시 올 시즌 처음으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을 통해 선보인다. 포뮬러카를 클래식하게 해석한 듯한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어 차를 보는 것만으로 흥미로워 해외에서는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몸집은 작지만 고성능 차량이기 때문에 화려하고 역동적인 레이스를 만끽할 수 있다.

sereno@donga.com

현대차, 산불 피해지역 10억 원 기부

현대차그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10억 원의 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한다고 7일 밝혔다. 성금과 별도로 피해 지역에 생수와 라면 등 기본생필품을 지원하고 '도시형 세탁구호차량' 3대도 투입한다. 7톤 트럭을 개조한 '도시형 세탁구호차량'은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및 발전기 1대 등을 갖춰 하루 1000kg의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돕기 위해 이달 말까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특별점검 활동도 진행한다. 피해 차량이 입고해 수리할 경우 수리비 최대 50%를 할인(자차보험 미가입 고객 대상,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차량을 입고해 렌터카를 대여할 경우 최대 10일 간 렌터카 사용료 50%를 지원한다.

쏘카, 4월 퇴근길 1000원 프로모션

쏘카가 이벤트 '쏘카만 있어도 편안한 퇴근'을 진행한다. 4월 한 달 간 출퇴근 시 쏘카 차량을 1000원에 대여할 수 있다. 주중 전용(일~목) 쿠폰 발급 프로모션으로 쏘카존(제주공항 쏘카존 제외)에서 당일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최대 14시간)까지 1000원에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 가능 차량은 레이, 볼트EV, 스포티지 등 경형, 소형, 준중형, SUV, 전기차 총 27종이다. 당일 저녁 7시~자정 출발 예약까지 쿠폰 적용이 가능하다. 부름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으며 보험료, 주행요금, 하이패스 비용 등은 기존 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원성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BMW 그룹, MS와 개방형 제조 플랫폼 출시

자동차 생산 효율성 향상 등 기대

BMW 그룹이 자동차 산업과 제조업 분야의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공유하는 개방형 제조 플랫폼을 발표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조 혁신의 일환이다.

개방형 제조 플랫폼(Open Manufacturing Platform·이하 OMP)은 기술 프레임을 공유할 수 있는 업계 커뮤니티로 복잡하고 독점적인 제조 과정을 없애기 위해 설계되었다. OMP 참여자들은 자동차를 비롯한 폭넓은 제조 부문에서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작 시간 단축, 생산 효율성 향상 등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미래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개발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BMW 그룹은 IoT 플랫폼과 연결된 3000대 이상의 기계, 자율 운송 시스템 관련 사례를 OMP 커뮤니티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구축 되었다.

BMW 그룹 보드멤버 올리버 집세는 "개별화된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는 복잡한 작업 공정에는 혁신적인 IT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필요하다"면서 "OMP을 통해 다른 기업에 자사의 솔루션을 제공해 시장에서 협력 업체들과 해당 분야를 리딩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OMP 커뮤니티는 현재 추가 파트너를 모집 중으로 2019년 말까지 4~6곳에 이르는 파트너사를 확보하고 최소 15건의 사용 사례를 생산 환경에 적용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허리·목·무릎 통증을 운동으로 한번에.. 전자동 거꾸리!

◆ 허리통증...운동.非수술 단계별 치료

현대인들의 척추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고통받고 있다. 청소년들이나 직장인들은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와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적어지는 중장년들은 근력이 감소됨에 따라 경·척추 질환자가 늘고 있다. 척추는 기와집의 대들보에 비교될 정도로 우리 몸에 있 어 중요한 구조물이다. 이러한 경·척추가 무너질경우 통증은 물론 디스크나 측만증 등과 함께 심할 경우 전신마비까지 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척추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척추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척추가 받는 중력의 힘이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자동 전동 거꾸리는 이러한 중력의 힘을 반대로 이용하여 척추를 견인해 주어 교정하고 허리 근력을 강화시켜 주어 척추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자동 전동 거꾸리는 척추 건강 개선 뿐만 아니라 전신 스트레칭 효과도 볼 수 있고 하체에 몰려 있는 혈액을 머리까지 공급하여 혈액 순환을 원할하게 해준다.

세계여성발명대회 은상

MADE IN KOREA

3단계 자동운동기능 장착
세계최초 특허 등록 10-1884157
[K.B.I.Z -1억 생산물배상 책임보험가입]
실버 전용 자동전동거꾸리

관계자는 "이번 새롭게 출시된 자동 전동 거꾸리는 기존 수동 방식의 거꾸리와는 다른 자동 방식으로 각도 조절이 용이하고 핸디형 리모컨으로 쉽게 초보자나 노약자분들이 혼자 집에서 안전하게 운동 할 수 가 있다. 또한 서서 시작 하는 방식으로 혈압이 있는 환자의 사용에 무리가 없고 안정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 세련된 깔끔한 디자인으로 주변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으며 경제성으로도 가족들과 함께 하루 5분씩만 거꾸리 운동에 투자 한다면 경·척추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고 전했다. 국내유일 3단계 자동 프로그램형 전동 거꾸리는 100% 국내제작으로 1년 무상 A/S되며 1만개 판매 감사기념으로 2019년형 최초 40% 할인행사와 5개월 무이자로 3일 무료체험과 20만원 상당한 사은품을 30분에게만 진행한다.

문의전화 070-4914-5205

다리의 뭉침, 쥐가 난다면 발목펌프운동 추천~

◆ '누구나 쉽게 누워서 하는 이어돎'

혈액순환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이어돎'은 우리 몸 혈관의 80% 이상이 모여 있는 발목을 자극해 혈액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도와 주는기구다. '이어돎'이란 '막힘없이 이어서 도는 순환'의 순우리말이다. 발목펌프 운동의 시작은 신장병과 당뇨병으로 고통을 앓던 일본인 이나가키씨가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가 물을 빨아올리는 힘을 관찰하다 고안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발목펌프 운동은 발목의 혈관을 두드려줌으로써 혈관의 수축/이완을 도와 아래쪽에 모여 있는 노폐물과 정맥혈을 심장쪽으로 운반시켜 혈액이 순환되는 원리로 몸 속에 고여 있던 노폐물을 정화와 피로를 풀어준다. 특히, 발저림으로 잠 자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고생하 는분 들이나, 저녁에만 발이 시리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운동이 부족한 분들이 사용하여 각종 성인병까지 치유가 된 사례가 있는 책이 출판 되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혈액순환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이어돎'이 출시되었다.

MADE IN KOREA

7단계 자동운동기능 발목펌프운동기

관계자는 "타제품과는 다르게 리모컨이 내장되어 편하게 누워서도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저소음, 저진동으로 바닥 울림이나 층간 소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7가지 운동 패턴을 선택 할 수 있으며 강도 조절이 가능하다" 고 전했다. '이어돎' 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목펌프 운동은 하루 중 아침 공복시 및 취침 전 2~3회 정도 무릎을 펴고하면 효과적이다. 초보자는 시작할때 강약 조절 버튼으로 처음에는 약으로 놓고 며칠간 사용하다가 점차 강도를 높여 가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어돎' 관계자는 "2주년 출시기념으로 3일간 무료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용 후 불만족시 100% 전액 환불을 실시한다"고 한다.

문의전화 070-4914-5205